

# 순천부 음성 '남문터 광장' 시민에게 개방

원도심 중심 10,789㎡ 부지  
지상 2층~지하 3층 규모  
국제 아이디어 공모 설계  
주변상권 활성화 기대해

순천시는 최근 원도심 중앙로(영동 1번지) 일원에 순천부 음성 '남문터 광장' 조성을 완료하고 시민에게 개방하였다.

이날 열림식은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과정 사진전시와 시설 둘러보기 등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순천시는 지난 2015년부터 순천원도심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순천만 국가정원에 상응하는 문화적 행위를 원도심으로 유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수많은 토론을 거쳐, 원도심 중심부 10,789㎡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3층 8,499㎡ 규모로 순천부음성 남문터 광장이 조성되었다.

순천시 최초로 국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설계된 '순천부 음성 남문터 광장'의 지상 1층은 연자루를 현대식



으로 재해석한 신연자루와(306㎡)와 야외 전시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파빌리온(210㎡), 상시 개방하는 도시정원 및 쉼터(6,911㎡)로 조성됐다.

또 지하 1층에는 순천 관광지와 원도심 여행자 플랫폼인 관광센터(182㎡), 여행자 물품을 보관하는 물품보관실(67㎡), 순천부 음성과 역사자료를 전시하는 상설전시실(175㎡)과 기획전시실(163㎡), 교육과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강의실(204㎡)이 있으며, 시민들의 소통과 직접민주주의

의 거점이 될 광장(1,378㎡),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판매장(302㎡) 등이 들어서게 된다.

지하 2층은 주차장 152면을 갖추고 있고, 지하 3층은 지하상가 씨네펠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와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어 주변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남문터 광장의 도로, 주차장, 광장, 정원 등 당장 이용이 가능한 시설은 설 명절 이전에 개방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전시공간 등은 시범운

영을 거쳐 오는 4월 이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남문터 광장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지혜를 모아주신 인근 상인회, 주민, 관련 전문가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남문터 광장이 순천부 음성의 역사성을 이어받아 원도심의 거점 공간으로써 시민들의 소통과 지역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가 숨쉬는 허파와 같은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여수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속도낸다

지난 해 4개소·올해 10개소 전환...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

여수시가 올해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속도를 낸다.

여수시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2개소 등 4개소를 전환했고, 올해 10개소 확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여수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21개소로 전체어린이집의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31개소까지 확충하면 22.2%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아파트 입주로 보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대성베르데 어린이집은 3월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죽림현대힐스테이트A와 대림e편한세상 A까지 공동주택 내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가 신설된다.

또한 시는 3월 중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기임차 전환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적합시설을 선발

해 보건복지부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복지부 현장조사 및 최종승인을 거쳐 6월에 전환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꿈에그린1단지과 2단지 어린이집을 개원했고,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미평하나어린이집을 대해 신축했으며, 꿈모아어린이집을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공공보육의 양적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지역 공공·민간어린이집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미래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고품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 보육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고흥군, 금년 청렴도 향상 위한 힘찬 출발 혁신청렴검증단 회의 개최...활동방향 제안·건의

고흥군은 최근 군청 팔영산홀에서 군민의 참여를 통한 혁신행정 구현을 위해 만들어진 혁신청렴검증단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민선 7기 군수 공약 사항인 혁신청렴검증단은 임기 2년을 마무리하며 2021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신규 위원 위촉장 전수, 금년의 혁신청렴시책의 추진 방향과 주요 시책 설명을 진행하였다.

또한 혁신청렴검증단의 활동 방향을 제안하고 건의하는 등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혁신청렴검증단의 새로운 변모를 위해 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하는 등의 조직 재정비로 군민의 뜻에 부응

하는 혁신청렴검증단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송기근 고흥군수는 "혁신청렴검증단에 고흥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군민의 뜻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줄 것"을 주문하고 "미래의 고흥을 위해 혁신청렴검증단의 제안과 자문을 군정에 반영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군정 운영의 디딤돌로 삼겠다"고 약속하였다.

앞으로 혁신청렴검증단은 군민 불편 사항 신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청렴시책 발굴 제안 등 군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 기자

# 보성군,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 등 축산예산 89억 원 투입한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청정축산으로 경쟁력 강화

보성군은 올해 축산 분야에 예산 89억 원을 투입하여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 등 5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에는 3억 원을 투자하여 체계적인 개량관리를 진행해 우수한 '뜨름송아지'를 생산한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12억 원, △농산업 경쟁력 강화 5억 원, △조식료 생산기반 확충 38억 원, △친환경 꿀벌산업 육성 3억 원, △가족분뇨 자원화 지원 6억 원, △친환경 축산 지원에 3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신규 시책으로는 가족분뇨 개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마을형 공동 퇴비사(1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오는 3월 25

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보성군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인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 올해 전업 규모(소 50두, 돼지 1,000두, 가금류 5,000수) 이상 농가와 최근 3년 이내 신축농가 위주로 직접 농장을 방문하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축산분야는 축종이 많고 다양하며 소득이 높아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들어 약취 민원, 질병 취약 등 사육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축산 농가들의 사육의욕 저하 등이 우려된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친환경축산을 실천하고 사육환경을 깨끗이 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성=김택순 기자

# 광양시, 걸으면 혜택받는 '워크온 챌린지'

지난 8일부터 20일간 13만 보 이상 달성자 700명에 혜택 제공

광양시가 코로나19로 적절한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일정 기간 목표

걸음수를 달성하면 혜택을 제공하자는 건강프로젝트 '모바일 걷기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걷기챌린지는 2월 8부터 27일까지 20일간 13만 보 이상 달성자 선착순 700명에게 상품혜택을 제공하며, 매일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실천하도록 1일 최대 8천 보로 제한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모바일 앱

워크온을 설치 후 광양시 공식커뮤니티(소그룹 읍면동 선택)에 가입해서 휴대폰 위치설정을 광양지역 제한으로 하고, 광양시 챌린지에서 '시작하기'를 누른 뒤 휴대폰을 소지하고 걸으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